

<2021년 7월 30일 금 새벽 말씀>

[주 말씀]

오늘은 7월 30일입니다. 금요일 새벽말씀.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하여라. 기회에 대해서 금주는 말씀을 계속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꺾어보고 또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한 주일 동안 오늘까지 지내왔어요. 오늘도 꺾고 내일도 또 꺾어볼 거야. 이제 기회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머리로서 꺾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을 먼저 말씀해주겠어요. 기회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항상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도 큰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작은 것은 우리가 하고. 기회도 큰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작은 것은 자기에 해당되는 기회들입니다.

기회는 준비했다가 맞아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했죠. 꼭 반드시 준비했다가 기회를 맞이하고 행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 위에 단계 말씀은 기회는 준비하지 않고, 맞이한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인고 하니 날마다 기회가 오니까 준비할 것도 없다. 매일 행해야 된다. 기회를 실행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이다. 그래서 능숙하게 하고.

기회라는 것은 운동 같아서 자꾸 해봐야 늘어납니다. 자꾸 할수록 늘어요. 기회도 자꾸 기회를 집중해서 파악하고 노력하고, 해야만 기회를 잘 잡고, 기회를 행하게 되요.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겠어요. 기회는 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다 말면 안되고, 각종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요.

기회를 행해보고, 기회가 왔을 때 맞이해보니까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 동원해서 막 해버려야 되요. 자기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합작해서 막 해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만이 집중해야 되요. 그리고, 푸짐하게 담대하게, 열심히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말고, 집중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때가 가면 지나가고 맙니다. 마치 장마철에 도랑물이 막 내려가죠. 흙탕물이. 그러다가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때에 물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찰박해요. 점점 물이 줄어들다가 어느 날 확 줄어들어요. 마치 큰 바케스로 큰 그릇으로 물을 붓는 것이 쭉 흘러내려 가듯이, 장마졌을 때 동일해요. 그와 같이 기회도 어느 순간에 소낙비 왔다가 도랑물이 확 지나가듯이 지나가요. 그때에 막아놓고, 그때에 쓰지 않으면 못 씹니다. 일 순간이에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것도 있지만,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불리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요. 기회를. 왜 그런고 하니 그 일을 그때 안하면 다른 날은 하고 싶어도 다른 기회가 와도 그거 잡느라고 정신 못 차려. 다른 날은 다른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거기 못 간다는 것입니다. 노련하게 열심히 그리고, 담대하게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어제도 한곳에 일하는 기회가 왔어요. 이때다 하고, 포크레인 동원하고 사람 동원해서 처음에는 삽으로 하다가 이거 안 되겠어. 벌써 시간상 따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포크레인 와라. 이 때 안하면 안된다.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선생님 다음 주일에 또 장마진대요. 다음 주 한주간에 비가 엄청 온대요. 이상하더라. 여기 오고 싶더라. 그래서 놔두면 도로가 막 떠내려가게 생겼어. 사정없이 돌을 갖다가 쌓고, 포크레인으로 갖다 파내고 해버렸어요. 밤이 늦도록. 다른 시간을 또 뺏겼어요. 초저녁부터 할 시간을. 한 시간 미루어졌어도 기회는 이 때라고 밤이 깊도록 또 해버렸어. 어제의 기회를 다 행했습니다. 딱 붙잡고 행했어요.

옆에 제자들 보기에 하는 말이 보라, 너도 시켰을 때 이 때 안했으면 못했지. 정말 못 했어요. 이와 같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하라, 내가 빨리 하라. 그때는 멀쩡했었지. 그때는 좋았지요. 그 때에 하는 거다. 끝나고 나니까 천지개벽 일어나서 할 수가 없거든. 그 순간에 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회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더니만 정말로 맞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때 못 했으면 못 했다. 오늘은 못 가지. 할 수가 없어. 내일도 못 가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음 주 장마 또 맞이하는데 큰일난다.

기회는 참으로 귀하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손으로 삽으 깔짝거리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돼. 기회가 오면 백배 천배 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기계 갖고 막 밀어붙이고 신나게 해버려야 해. 여러분들 기회가 오면 혼자 하지 말라는 거야. 같이 더불어 유능한 자들과 같이 해요.

여러분들은 삽과 같고 팽이같다면 선생은 사명적으로 볼 때에 중장비 같아요. 같이 동원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어렵도 없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중장비는 사람보다 천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동원해야 되고. 하나님은 만배를 해 더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주는 천배를 더 하고. 머리가 있으니까, 지혜로 하니까. 이러므로 지혜를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일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크게 못하면 작게 해야죠. 대문 잠귀 났으면 개구멍으로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야. 많이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해야 해요. 안하면 큰 일나.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 하면 기회를 다 놓쳐.

باتزل만큼 하던 거 못하게 됐다고 늘면 안돼.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안 돼. 실가닥같이 계속 해야 되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요. 단체 행사 못하면 개인행사 하면 되잖아. 이게 바로 지혜로운 기회를 잡는 법입니다. 말씀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도자들은 이 때를 부도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흑자가 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금주 말씀을 중심해서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금주 행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식당도 사업하는 사람도 크게 안되서 문닫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을 안 닫고 한 사람씩이라도 하더라고. 그 후에 소문나기를 이 사람은 문 닫았구나, 안잡니다. 가끔 한번씩 한 사람이라도 문을 안 닫는데는 잡니다. 그와같이 자꾸 운영해야 코로나 끝났어도 운영이 되는 거야. 문 닫은 사람은 결국 포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작으면 작은 대로 계속 해나가야 되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여러분이 방학 때고 그렇죠. 이때에 한 때 봐야 되요. 여름에 장사할 수 있는 성수기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 그래도 쪼개서라도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것은 똑같아요. 섭리역사도 쪼개서라도 해야 됩니다. 환란 때는 비 맞으면서 삽질이라도 다른 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하면 음식집에 문을 닫듯이 닫는 거야. 이때 잘되는 곳은 더 잘되요. 몰려드니까. 반드시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회를 코로나 기간 때 다 놓치지 마요. 코로나 기간으로 좋은 기회가 더 오더라고. 더 좋은 기회가 더 와요. 장마지고 비오고, 그냥 홍수났을 때 고기가 더 올라오는 거야. 물이 차니까 더 올라와요. 장마지지 않을 때는 물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안 올라와요.

이와 같이 환란 때에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지면서 밑에 것도 올라와요. 그래서 환란을 더 이용해서 잘 하는 것입니다. 환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예요. 다 그런 거 있겠지만 이유지요. 이유. 환란 때 없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뒤바뀌니까. 바닥 것이 위로 가고 새 것이 올라오니깐.

그러므로 기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매일 기회를 실행합니다. 깨닫고 압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매일 온다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기회를, 삶의 저마다의 기회가 오고 가는 거야. 이번 기회 때에 여러분들 절실히 깨닫게 했어. 기회는 매일 온다.

게으른 자에게는 기회가 가끔 옵니다. 지나가도 올라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행해야 된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눈 깜빡 한 번 떴을 때 그때가 기회야. 이와 같이 모든 기회는 놓치면 그만큼 힘들다. 금주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행하라.

기회가 오기 전에 징조가 온다고 했죠. 깨달음의 징조, 어떤 만물을 통해 오는 징조, 사람이 오는 징조, 혹은 누가 누구를 통해 말하는 징조. 여러 가지 선악간에 나쁜 사건의 기회가 올 때도 있고 좋은 것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담대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히 행하라. 할 수 있으면 하여라. 그게 기회다.

이번 주 말씀 중에서 기회는 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만든다. 어떤 일을 만드는 거야. 기회를. 기회는 창조한다. 만든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들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런 여건을 만들고 조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획입니다. 미리 계획해서 여건을 만드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금주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보고 알았어요.

이러므로 이만큼 했으면 기회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죠. 금주에도 여러 생명들이 오고 가고 그랬어요.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온 자도 있고, 다시 나온 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친척들이 형제들이 데리고 와서 만나주기도 했어요. 이때 다시 신앙할 수 있는 기회다. 꼭 하도록 하라. 네 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때 못하면 10년 후에도 어렵다.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기회는 미루지 말아라. 조금 보이면 행하라.

기회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조금 온다. 그 놈을 잡고 행해야 기회를 몽땅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치 삽질하다가. 어제도 삽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팽이질하다가 안되겠다 판단해서 포크레인 와서 밀어붙여라. 멀지만. 그것이 낫다. 포크레인 오는 데 한 시간 걸려도 그것이 낫다. 계산해보니까 사람으로서 안된다. 그래서 싹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장비 동원하고 하나님 동원 성령님 동원 주를 동원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 합니다. 비소식을 들었더니 다음 주 비 엄청나게 온다고. 이와 같이 미리 미리 큰 일은 과감하게 해놔야 되요.

그러면 금주의 말씀, 이제 이만큼 해서 알아들을만 하고 전해줄 만큼 전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때 하라. 총동원해서 하라. 기회는 기다리지 말고 만드는 것이다. 기회는 작고 크고 매일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자기에게 오는 기회, 여건이 주어지면서 오는 기회. 기회는 이것 저것 모든 것이 갖춰져서 오지 않고 손톱만치. 그러다가 잡고 늘어지면 몸뚱이만큼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봤죠. 사람들 사는 거 봤죠. 월명동에 막 돌을 쌓고 할 때 그때 다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때 해놔서 해놓은 거야. 그때 못 했으면 못 합니다. 절대 불가능. 그때에 기술도 없었지. 중장비도 없었지. 그런데 돌은 많아. 사람들이 돌 좀 갖고가쇼 하는 기회였어. 돌이 핵이니까 무조건 끌어다가 놓은 거야. 그러므로 기회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자연성전 궁전을 진 거야. 볼 때마다 보람있어.

어제 밤에도 한 시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그 때 못했으면 못 했다. 그때 중장비 포크레인 덤프트럭도 없고 삽만 있고 리어커만 있는데 그때 파냈어. 야 이 엄청난 작업량을 삽갖고 했다니! 그러다 보니까, 하니까 그 후에 포크레인을 하나님이 오게 만들고 덤프트럭 오게 만들고 한 거야.

처음부터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다보면 어마어마한 것을 자꾸 하게 되고 기회가 보여요. 하다보면 기회인 것을 알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요. 나무심는 것도 돌 사는 것도

그때 한 때예요. 수석도 지금은 한 점 못 사잖아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더라고. 그때에 미친 척 보이고 막 돌아다니고 날만 새면 주우러 다니고 수석주우러 다니고.

지금은 날만 새면 다른 거 해야 되요. 얼마나 재미있다고. 그러나 때와 기간 통해 오는데 그때 준비했다가 탁탁 하면 재미있어. 근데 이상하니 기회를 놓치면 꼬리만 보고. 나중에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이익이, 얻는 것이 없으니까. 기회를 잡으려면 항상 쫓아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요.

산기도 다닐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다녔잖아. 어떤 기도 다닌다고, 산기도 다닌다고 집을 얻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게 산기도 다니면서 먹을 것도 생기고, 진로도 결정되고 다 됐잖아. 그거 갖고 되는지 몰랐는데 그거 갖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섭리역사 하나님 역사까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탄에게도 악평자에게 악평기회를 주지 말고 담대하게 해야 되요. 여호수아 담대한 기도를 60일째 합니다. 때려부수고 없애는 기도를 강렬하게 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더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도 하루 종일 보면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면 못하더라고. 꼭 해야 되요. 강력하게, 신나게 해야 되요.

자기 기회가 오면 신나게 해야 되요.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라도 막 해대껴야 되요. 그때가 기회예요. 해야 되요. 기회. 어제도 봤죠. 길옆에 풀을 치다가 벌이 딱 쏘여서 내가 침을 갖고 다니길래 옆에 사람이 벌을 쏘였어. 큰 벌. 그래서 그걸로 피내는 걸 팍팍 쭈시고 부항으로 딱 쪽 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큰 벌을 쏘였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탁탁 바로 실천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모기 물었을 때도. 어제 브이로그 봤죠. 꼭 하라니까.

이와 같이 기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전문가가 되요. 그냥 하면 전문가가 안되요.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야 안 놓쳐요. 큰 기회 놓치면 고통이 상상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작으나 크나 기회가 오면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행해야 되요.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회가 해결하는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해결해주니까.

이와 같이 기회들에 대해서 금주 말씀을 열심히 해줬어요. 많이 들었죠? 말한 거 다시 이제는 반복못해. 이 놈을 가지고 기회를 잡고 행하고 모든 기회를 만들고 하는 거야. 책을 백권 본 것보다 더 큰 거야. 지식이 들어갔어요. 축소 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해주셨죠. 어떻게 기회를 하라는 것을.

선생님은 금주에 기회들을 거진 잡았어요. 행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악평자 글보고 여기 나쁜 데 아니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지하니까 모르는거야. 악평자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이것들 만큼은 놔두면 안된다. 하나님 손해이고 예수님 손해이고 역사의 손해이고 다 손해라고.

사망 사탄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없애는 기도를 꼭 매일 해야 되요. 악령자 마귀 사탄 막는 자요, 이것들 모두 해야 되요. 흔히 언론인 방송인들이 끌쩍이는 거 기도해서 막아버리고 쫓아다녀서 막아야 되요. 가만히 놔두면 안되요. 수많은 무리가, 우리가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더 밀어붙이고 담대해야 되요. 놔두면 독사가 되서 물어요. 독사로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해를 주는 자들로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와 모두 담대히 행해서 여호수아 기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행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금주 말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두 이만치 했으면 충분히 했으니까 기도하겠어요.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기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했으니 이들이 이제 몰라서 못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저마다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하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회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해서 기회를 줬는데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행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왔는데 우연이 아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섭리의 절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중장비가 되고 큰 크레인이 되고 큰 추레라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회를 행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꼭 그리하게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함께 주와 함께. 주가 지혜요 주가 지식이니 그와 함께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함을 받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민족과 세계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주권자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온전한 자를 세워서 국가 나라 온전케 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탄편 흑암편을 드는 자를 세우지 말아주시고 북한 편을 드는 자를 세우지 말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 편 세운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 해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이 길러온 자를 내가 세우겠다 했습니다. 항상 사탄편 흑암편 사상 다른 편을 드는 자를 세우지 말아주시고 오직 아벨편 드는 자를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저마다 전도하며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코로나 기간 때 지혜롭게 기회들을 활

용하라 했습니다. 그리 하겠으니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힘있게 행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시험과 핍박이 다 깨부수어지며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미리 대처해 놓고 부지런히 해놓게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 약한 자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 모두 고쳐 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부들에게 할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정신차리고 열심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나는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